

## 강간사건의 사실인정에 대한 양형인자와 편향요인의 효과: 피해자나이와 판단자성별\*

이 다 니

박 광 배†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사실판단 절차와 양형 절차가 분리되지 않으나, 본 연구는 강간 사건에서 양형을 위한 정보인 피해자 나이가 사실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피해자비난과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이 피해자의 나이와 사실판단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판단자의 성별이 강간사건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를 분석하였다. 참가자들에게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혹은 26세로 조작된 강간사건 시나리오를 제시한 뒤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판단, 양형, 피해자비난,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을 측정하였다. 유무죄판단에 대해 피해자 나이의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판단자성별의 효과는 유의미했다. 남성 참가자들이 여성 참가자들보다 유죄판단을 적게 했으며, 이 효과를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피해자나이, 판단자성별, 유죄판단, 피고인의 비난가능성, 피해자비난

---

\* 이 논문은 2015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th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2015).  
† 교신저자 : 박광배,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361-763) 충북대학교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Tel : 043-261-2595, E-mail : kwangbai@chungbuk.ac.kr.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행동이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당시 피고인에게 형사책임능력이 있는지, 또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없는지를 살펴 유무죄를 가리고(사실판단) 피고인이 유죄인 경우에 범죄 상황과 피고인의 특성 등 여러 요인들을 검토하여 형의 양과 질을 결정한다(양형판단). 사실판단과 양형판단은 각기 다른 판단이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형사재판에서는 두 판단이 한 법정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형을 위한 정보들이 사실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양형정보가 피고인의 범죄를 증명하는 증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판단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유죄심증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켜 불공정한 재판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의 전과기록은 사실판단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게 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Greene & Dodge, 1995). 영국과 미국의 법정은 사실판단절차와 양형판단절차를 분리한 공판절차이분화로 사실판단에 대한 전과기록 등 양형정보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어떤 양형정보는 사실판단과정에서 통제될 수 없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나이는 양형정보지만,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형법 제 305조).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거운 형을 선고받지만 피해자의 나이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해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양형정보는 강간사건을 판단하는 판단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강간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한 선행연구들에서 연구 참가자(판단자)의 성별 또한 강간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알려졌다. 남성이 여성보다 데이트 강간을 ‘강간사건’으로 판단하는 것을 꺼리며, 피해자를 더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Maurer & Robinson, 2008). 따라서 판단자의 성별은 강간사건을 판단하는데 편향을 유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지 않는 정보인 피해자의 나이와 판단자의 성별이 사실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떠한 심리적 경로를 통해 사실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강간사건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판단자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사실판단에 대해 피해자나이와 판단자성별이 가지는 효과의 심리적 경로가 피해자 비난과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에 의해 설명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 공판절차와 사실판단

대한민국의 공판절차는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는 사실판단절차와 형량을 결정하는 양형심리절차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일원적 공판절차는 2008년부터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들은 피고인에 대한 사실판단과 양형판단을 동시에 한다(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제46조 제4항).

사실판단절차에서는 범죄성립요건을 검토하여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이 있는지 판단하고(임동규, 2004)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경

우에 판사와 배심원들은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두 절차는 서로 다른 증거들과 정보들을 필요로 한다. 특히 피고인의 전과기록이 사실심리에서 공개되면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Greene & Dodge, 1995), 대한민국 법정에서는 사실판단과 양형판단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형정보인 전과기록도 여과 없이 재판과정 중에 제시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도 사실판단과 양형판단이 일원화되어있어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들의 판단이 양형정보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이진국, 2013). 피고인의 전과, 성정, 가정환경 등의 양형정보들은 배심원에게 유죄심증을 갖게 하거나 혹은 피고인에 대한 동정심을 유발시켜 배심원들의 사실판단에 사사로운 감정을 개입시킬 수 있다(한상훈, 2008).

이러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양형정보가 사실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전과사실 외의 양형정보가 사실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은 많이 추측되고 있지만, 실증연구를 통해 밝혀진 것은 거의 없다. 양형정보가 사실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정확히 인식된다면, 국민참여재판의 절차합리화를 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사실판단에 대한 양형정보의 영향력

전과는 피고인의 형을 가중시키는 양형정보다. 그러나 피고인의 전과는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향을 형성하게 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 또한 높이는데, 이 영향력은 많은 연구들에서 검증되었다(예, Greene & Dodge, 1995). 그 외에 다양한 다른 양형정

보들(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동기 등)도 전과처럼 사실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실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양형정보들 중 피해자의 나이에 집중하였다. 피해자의 나이는 공판절차를 이분화하여도 사실판단 중인 배심원들에게 감출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의 진위를 파악하여 영향력이 있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거나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나이가 사실판단을 위한 증거가 되는 경우는 기소범죄가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추행일 때다. 만 13세 미만의 아동은 성행위에 동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1)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고 (2)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면 그 성관계의 합의여부를 막론하고 피고인은 유죄다(형법 제 305조). 그러나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사건(형법 제 209조)처럼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성관계가 강압에 의한 것이었는지가 범죄구성요건이고 피해자의 나이는 구성요건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피해자인 강간사건에서 피해자나이가 사실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영국, 호주의 연구자들은 피해자의 나이를 다양하게 조작하여 아동 피해진술의 신빙성과 유죄판단율을 측정하였다(Allen & Nightingale, 1997; Bottoms, Golding, Stevenson, Wiley, & Yozwiak, 2007; Bottoms & Goodman, 1994; Bottoms, Rudnicki, & Nysse-Carris, 2004; Crowley, O'Callaghan, & Ball, 1994; Davies & Rogers, 2009; Duggan, Aubrey, Doherty, Isquith, Levine, & Scheiner 1989; Gabora, Spanos, & Joab, 1993; Golding, Alexander, & Stewart, 1999;

Golding, Sanchez, & Segó, 1997; Golding, Sanchez, & Segó, 1999; Goodman, Batterman-Faunce, Schaaf, & Kenney, 2002; Nightingale, 1993). 이 연구들의 참가자들은 일반적으로 아동이 어릴수록 사건을 정확하게 진술할 능력은 낮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동이 성적으로 순진하기 때문에 성폭행에 대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Davies & Rogers, 2009). 참가자들은 스물 두 살의 피해자와 열 네 살의 피해자보다도 여섯 살 아동피해자를 더 신뢰할 수 있는 증인으로 판단하기도 하였다(Bottoms & Goodman, 1994). 아동의 피해진술이 사실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유죄판단에도 영향을 미쳐서 피해아동이 어릴수록 유죄판단율이 상승하고, 10세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결과가 보고되었다(Nightingale, 1993).

선행연구들에서 아동의 피해진술의 신뢰도가 주된 관심사로 측정되었고 그 외에 다른 조절변인이나 매개변인을 탐색한 경우는 찾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10세 이상인 경우에는 피해자나이가 진술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Yozwiak, Godding, & Marsil, 2004). 피해자가 10대 미성년자일 때, 피해자가 성인일 때보다 유죄판단율이 높다면 그 원인은 피해진술의 신뢰도가 아닌 다른 이유에서일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나이가 사실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소, 차단시키는 방법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영향력의 심리적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판단자 성별

강간사건에서 판단자의 성별은 사실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강간사건의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

했다(Deitz & Byrnes, 1981; McNamara, Vattano, & Viney, 1993). 강간사건 판단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유죄판단을 많이 하는 경향성은 증거의 강도가 약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도 나타났으며, 남성은 유죄증거가 강한 경우에도 무죄판단율이 여성보다 높았다(McNamara et al., 1993). 강간사건 판단에서 성차가 나타나는 현상을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인식, 그리고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인식이 성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Deitz & Byrnes, 1981).

남성이 동성인 남성 피고인에게, 그리고 여성이 동성인 여성 피해자에게 자신을 동일시하여(McNamara et al., 1993) 그 입장을 수용하고 공감하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인식에서 성차가 나타날 수 있다(Deitz & Byrnes, 1981). 남성 판단자들은 피해자가 강간을 부추기는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Deitz & Byrnes, 1981) 반면에 여성 판단자는 피해자가 강간을 부추겼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피해자의 입장을 더 공감한다(Calhoun, Selby, & Warring 1976; Feldman-Summers & Lindner, 1976).

피해자나이와 판단자성별이 사실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경로

강간사건에서 피해자들이 강간사건에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피해자비난(victim blame; Whatley, 1996)과 피고인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피고인을 비난할 만하다고 여기는 피고인의 비난가능성(blameworthiness)이 피해자나이와 판단자성별이 사실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비난은 피해자가 성폭행을

원했거나 성폭행을 당할 행동을 했다고 비난하기 때문에(Maurer & Robinson, 2008) 범죄사건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귀인해서 법정에서 판사와 배심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Baumer, Messner, & Felson, 2000; Kalven & Zeisel, 1966). 사실판단자가 피해자비난을 강하게 한다면 심지어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거나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Baumer et al., 2000).

판단자는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피해자비난을 약하게 한다(Burt & Estep, 1981; Davies & Rogers, 2009; Nightingale, 1993). 아동은 미숙하기 때문에 성폭행에 책임이 없고(Burt & Estep, 1981) 폭행에 저항할 수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Shaver, 1985). 그러므로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피해자 비난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피해자비난에 대한 판단자 성별의 효과는 혼재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피해자비난에 성차가 없거나(Cassidy & Hurrell, 1995; Davies & Rogers, 2009; Strömwall, Alfredsson & Landström, 2013a; Strömwall, Alfredsson & Landström, 2013b) 여성이 남성보다 피해자비난을 많이 한다는 결과를 보고했다(Cameron & Stritzke, 2003). 그러나 남성이 피해자의 성적 의도를 여성보다 더 높게 평가하여 피해자를 더 비난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Maurer & Robinson, 2008).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은 피고인이 범죄에 부합하는 처벌을 받는 것 즉, 양형과 연관되어 있다(Demuth & Steffensmeier, 2004). 본 연구에서는 사실의 확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비난이 피해자나이의 판단자성별이 사실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매개하는지 탐색하였다.

피해자가 연약하고 범인에게 반격하기 어렵

다고 생각될 경우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은 더 높게 평가된다(Strömwall et al., 2013b).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더 연약하고 범인에게 반격하기 어렵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은 피해자나이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이 상승하여 유죄판단 확률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성범죄 행동의 비난가능성을 남성이 여성보다 낮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Krahé, Temkin, & Bieneck, 2007), 판단자성별이 유죄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이 매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 방 법

### 참가자

본 연구는 A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강의를 듣는 대학생 중 연구참여 크레딧을 받기 위해 참여에 동의하고, 배심원자격이 주어지는 만 20세 이상의 학생 133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실험에 참여하여 끝까지 응답하였으나 마지막 주의점검에서 독립변인인 피해자나이의 피고가 기소된 사건 유형(강간)을 정확하게 응답하지 못한 8명의 참가자들을 제외하여 총 125명의 참가자들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23.86세(범위: 20~32세)였다. 남성 참가자들은 66명으로 평균 24.47세(범위: 20~32세), 여성 참가자들은 59명으로 평균 23.19세(범위: 20~30세)였다. 남성 참가자들 중 피해자가 미성년인 집단에 무선할당된 참가자는 29명, 피해자가 성인인 집단은 37명이었다. 여성 참가자들은 29명이 미성년피해

자 집단에 할당되었고 30명이 성인피해자 집단에 할당되었다.

### 시나리오

본 연구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6년에 무죄로 판결된 특수강간사건의 판례를 참고하여 시나리오를 제작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927). 피해자나이가 강간사건에서 사실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목적에 따라 해당 재판내용의 상당부분을 각색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시나리오에서 피고인은 홀로 집을 보던 중 여동생의 친구인 피해자가 방문하자 피해자를 과도로 위협하여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피해자의 교제신청을 피고인이 거절하자 피해자가 강간으로 허위신고를 했다고 주장한다. 총 8개의 증거들이 검사와 변호사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며 제시되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은(증거 5, 7, 8)은 변호사의 주장을 뒷받침 한다. 반면 흥기에 피고인과 그 가족들의 지문만 남아있었다는 지문감식결과(증거 6)는 피고인이 흥기를 들어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했다는 검사의 주장을 지지한다. 그 외의 증거들은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대용량의 음란물이 발견되었다는 경찰의 수사결과(증거 1)와 음란물들은 친구들과 함께 보는 것이라는 피고인의 증언(증거 2)으로 사실판단을 위해 필요하지 않은 정보들이나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증거들이었고 남은 2개의 증거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것을 증명하는 증거들로 DNA 검사결과(증거 3)와 산부인과 전문의

의 증언(증거 4)이었다.

피해자나이에 따라 처음 공소사실 부분에서 피해자의 나이를 16세 혹은 26세로 표기하고, 최후 변론에서 검사가 16세 피해자인 경우 ‘미성년자’, 그리고 26세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라고 언급한 것 외에 두 시나리오는 동일했다.

### 독립변인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두 가지로 피해자나 이와 참가자의 성별(이하 판단자성별)이다. 독립변인인 ‘피해자나이’는 시나리오 속 피해자가 16세 미성년자(이하 미성년피해자)이거나 26세 성인(이하 성인피해자)으로 양형정보가 사실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조작했다.

### 종속변인

#### 증거 평가와 유죄 판단

본 연구에서 참가자들이 피해자나이나 판단자성별에 따라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증거가 다른지, 혹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다른지 분석하기 위하여 증거가 피고인에게 얼마나 불리하다고 생각하는지 측정하였다. 모든 증거들은 5점 리커트 척도로 ‘1 = 매우 아니다’부터 ‘5 = 매우 그렇다’ 범위 내에서 평정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증거를 볼 때마다 그 증거가 피고인에게 얼마나 불리한 증거라고 생각하는지 평정하였다.

참가자들은 시나리오를 읽고 피고인이 유죄인지 판단하였다. 유무죄 판단은 ‘유죄’ 혹은 ‘무죄’인 이분범주변인으로 측정하였다.

### 피해자비난

본 연구에서는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귀인하여 피해자를 비난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여 사건이 일어난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었는지를 참가자에게 3가지 문항으로 질문하여 측정하였다. 피해자비난은 ‘0 = 매우 아니다’에서 ‘10 = 매우 그렇다’의 11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피해자비난의 내적일치도(Cronbach'  $\alpha$ )는 .88이었다.

### 피고인의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이 유죄판단에서 피해자나이와 판단자성별의 효과를 매개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 부적절했는지 2가지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피해자비난과 동일하게 11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의 내적일치도(Cronbach'  $\alpha$ )는 .81이었다.

### 절차

본 연구의 실험절차와 목적, 참가자들에게서 수집하는 정보에 대하여 A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참가자는 온라인 조사 페이지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실험에 참가하였고 두 실험집단(피해자나이 16세/26세) 중 하나에 무선할당되었다.

참가자들은 시나리오에서 제시되는 공소사실과 검사와 변호사의 주장을 읽고 사건의 개요를 파악한 뒤 증거들을 평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총 8개의 증거들을 평가한 뒤 검사와 변호사의 최후 진술을 제시받았다. 이후 참가자들은 피고인이 유죄인지 결정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은 시나리오의 피고인이 얼마나 비난

받을 만한지 2문항으로, 피해자를 얼마나 비난하는지 3문항으로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의점검을 위하여 참가자들은 기소죄명, 피해자의 나이, 범행이 일어난 장소, 흉기에 대하여 객관식 문항에 응답했다. 이후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수집한 뒤 실험을 종료하였다.

## 결 과

### 유무죄 판단

참가자들 중 유죄판단을 한 참가자는 44명으로 35.2%였다. 미성년피해자조건에 참가자들 중 41.4%가 피고인을 유죄라고 판단했으며, 성인피해자 시나리오를 본 참가자들 중 29.9%가 유죄판단을 했다. 카이제곱 검증 결과 피해자나이에 따른 유죄판단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chi^2 = 1.81, df = 1, p > .05$ ). 남성 참가자들 중 25.8%가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여성 참가자들은 그보다 많은 45.8%가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했다. 여성이 남정보다 유죄판단율이 높았다( $\chi^2 = 5.47, df = 1, p < .05$ ). 미성년피해자조건에서 남녀 간 유죄판단율의 차이는 없었지만( $\chi^2 = 1.14, df = 1, p > .05$ ) 성인피해자조건에서는 여성의 유죄판단율이 더 높았다( $\chi^2 = 4.72, df = 1, p < .05$ ). 그러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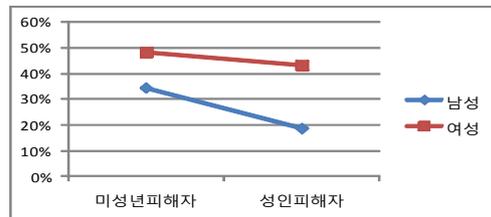


그림 1. 참가자들의 유죄판단율

하지 않았다.

**피해자비난과 피고인의 비난가능성**

피해자비난을 측정했던 3문항의 응답들의 평균( $M=6.21$ ,  $SD=2.18$ )과 피고인의 비난가능성 2문항의 평균( $M=6.41$ ,  $SD=2.85$ )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피해자비난에서 피해자나이의 효과와 판단자성별의 효과, 그리고 상호작용 효과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참가자들의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에서는 피해자나이의 판단자성별의 효과가 나타났다. 미성년피해자조건에 참가자들이 성인피해자조건에 참가자들보다 피고인의 행동을 더 많이 비난했다( $F(1, 121)=9.12$ ,  $p < .01$ ,  $\eta^2 = .07$ ).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피고인의 행동이 더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 $F(1, 121)=9.60$ ,  $p < .01$ ,  $\eta^2 = .07$ ). 그러나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에 대한 피해자나이의 판단자성별의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F(1, 121)= .015$ ,  $p > .05$ ,  $\eta^2 = .00$ ).

**피해자나이의 판단자성별이 유죄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매개효과**

피해자나이의 판단자성별이 유죄판단에 미치는 심리적 경로를 분석하기 위하여 데이터가 경로분석에 적합한지 AMOS 22로 모형을 검증하였다. 피해자비난과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이 피해자나이의 판단자성별이 유죄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모형으로 모형 적

합도를 검증한 결과,  $\chi^2 = .45$ ,  $df = 2$ ,  $p = .80$ , CFI = 1.00, TLI = 1.20, RMSEA = .00이었다. 추천지수 및 수용기준(Hair, Black, Babin, Anderson, & Tatham, 2006; 배병렬, 2014, p.232에서 재인용)에 따라서 본 연구의 모형의 모형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모형을 *Mplus*로 분석하였다. 먼저 피해자나이의 판단자성별이 유죄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피해자나이가 유죄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지만 판단자성별은 영향이 있었으며 여성일수록 유죄판단을 상승했다. 표 1에 분석결과를 표기하였다.

피해자나이의 판단자성별의 효과의 경로를 분석하기 위하여 개별단계다중매개모형(Simple step multiple mediation model)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증한 모형은 피해자나이의 판단자성별이 피해자비난과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에 매개되면서 동시에 직접적으로 유죄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소위 부분매개모형이다. 간접효과(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실시하였다.

피해자나이가 유죄판단에 미치는 전체효과 추정치는  $-0.62$ ( $SE = 0.49$ )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간접효과 추정치는  $-0.49$ ( $SE = 0.24$ )로 유의했다. 피해자나이가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에 매개되는 효과가 경향성이 있을 뿐( $p=.06$ ), 피해자비난의 매개효과는 없었다. 피해자가 성인일 때, 미성년자일 때보다 피고

표 1. 피해자나이의 판단자성별이 유죄판단에 미치는 영향

경로	표준화 추정치	신뢰구간	표준오차	p
피해자나이 → 유죄판단	-0.48	-1.27, 0.32	0.41	0.23
판단자성별 → 유죄판단	0.88	0.07, 1.66	0.40	0.03

주. 신뢰구간은 95% 신뢰구간으로 신뢰구간 하한값, 신뢰구간 상한값을 표기함

표 2. 피해자나이가 유무죄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의 경로계수와 신뢰구간, 표준오차, 검증치

경로	표준화 추정치	신뢰구간	표준오차	p
피해자나이 → 유무죄판단	-0.13	-1.03, 0.80	0.46	0.77
피해자나이 → 피해자비난	0.25	-0.53, 1.01	0.39	0.52
피해자나이 → 피고인의 비난가능성	-1.46	-2.38, -0.52	0.48	0.00
매개경로	매개효과 추정치	신뢰구간	표준오차	p
피해자나이 → 피해자비난 → 유무죄판단	-0.06	-0.34, 0.13	0.12	0.58
피해자나이 → 피고인의 비난가능성 → 유무죄판단	-0.42	-0.97, -0.11	0.22	0.06

주. 신뢰구간은 95% 신뢰구간으로 신뢰구간 하한값, 신뢰구간 상한값을 표기함.

인의 행동을 덜 비난하여 유죄판단을 할 가능성은 66% 감소하는 경향성이 관찰되었다 [OR 0.66, 95% CI 0.38-0.90,  $p = 0.06$ ]. 표 2에 피해자나이의 효과 추정치와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유의도를 표기하였다.

판단자성별이 유무죄판단에 미치는 전체효과는 유의미했다(Total effect = 1.06,  $S.E = 0.50$ ,  $p < .05$ ). 그러나 직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간접효과도 유의미했으나(Total indirect effect = 0.59,  $S.E = 0.27$ ,  $p < .05$ ), 피해자비난의 매

표 3. 판단자성별이 유무죄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모형의 경로계수와 신뢰구간, 표준오차, 검증치

경로	표준화 추정치	신뢰구간	표준오차	p
판단자성별 → 유무죄판단	0.47	-0.45, 1.38	0.47	0.31
판단자성별 → 피해자비난	-0.62	-1.37, 0.15	0.38	0.11
판단자성별 → 피고인의 비난가능성	1.49	0.53, 2.39	0.48	0.00
피해자비난 → 유무죄판단	-0.25	-0.46, -0.05	0.11	0.02
피고인의 비난가능성 → 유무죄판단	0.29	0.11, 0.49	0.10	0.00
매개경로	매개효과 추정치	신뢰구간	표준오차	p
판단자성별 → 피해자비난 → 유무죄판단	0.16	-0.02, 0.48	0.12	0.21
판단자성별 → 피고인의 비난가능성 → 유무죄판단	0.43	0.12, 0.97	0.22	0.05

주. 신뢰구간은 95% 신뢰구간으로 신뢰구간 하한값, 신뢰구간 상한값을 표기함.

개효과는 없고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의 매개효과만 유의미했다. 판단자성별은 매개변인 없이 검증했을 때 직접효과가 유의미했는데,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이 매개하는 경우 그 직접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판단자성별이 유무죄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이 완전히 매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단자가 여성일 때 남성보다 피고인을 더 비난하여 유죄판단 할 확률이 154% 증가했다[OR 1.54, 95% CI 1.12-2.63,  $p = 0.05$ ]. 표 3에 판단자성별이 유무죄판단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추정치와 신뢰구간, 표준오차와 유의도를 제시하였다.

#### 증거평가

총 8개의 증거들이 제시되었으며 미성년피해자조건의 참가자들이 유죄증거인 증거 6을 성인피해자조건의 참가자들 보다 더 강력한 유죄증거로 판단했다( $t(122) = 2.37, p < .05$ ). 미성년피해자조건의 참가자들이 흉기인 과도에서 피해자의 지문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증거 6을 평균 3.83( $SD=1.31$ ) 정도로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반면에 성인피해자조건의 참가자들은 같은 증거를 평균 3.27( $SD=1.30$ ) 정도로 불리한 증거로 판단하였다.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나이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판단자성별은 성격증거인 증거 1과 2, 중립증거인 증거 4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이 대용량의 음란물을 소장중이라는 증거 1, 증거 2를 여성이 남성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평가하였다. 여성이 증거 1을 평균 3.51 정도로( $SD=1.09$ )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평정한 반면 남성은 평균 2.75 정도로( $SD=1.34$ ) 불리한 증거로 평정하였다( $t(122) = -3.46, p < .01$ ). 5점 리커트 척도에서 3점은

‘중간’이고, 그 이하면 증거가 불리하지 않는 뜻이다. 여성은 증거 1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간주했지만 남성은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증거 2는 남성( $M=2.03, SD=1.03$ )과 여성( $M=2.73, SD=1.03$ )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평가하였다( $t(122) = -3.77, p < .001$ ).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거 4에서도 판단자성별의 효과가 나타났다. 피해자의 질벽에 상처가 있다는 산부인과 전문의의 증언을 남성( $M=3.31, SD=1.22$ )과 여성( $M=3.98, SD=0.94$ ) 모두 유죄증거로 판단하였으나, 여성이 보다 강력한 유죄증거로 판단하였다( $t(122) = -3.47, p < .01$ ). 다른 증거들의 판단에서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 논 의

본 연구는 양형정보인 피해자나이와 사건을 판단하는 판단자의 성별이 사실판단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심리적 경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피해자나이가 어릴수록 유죄판단율이 상승하고, 판단자가 여성일 때 유죄판단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피해자나이와 판단자성별이 사실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피해자비난과 피고인의 비난가능성 매개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피해자가 16세 미성년자인 시나리오를 읽은 참가자들의 유죄판단율은 피해자가 26세 성인인 시나리오를 읽은 참가자들의 유죄판단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지 않았다. 그러나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나이

가 사실판단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의 매개효과는 경향성이 산출되었다. 이 결과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이 증거 평가에서 발견된다. 증거 평가에서 미성년피해자조건의 참가자들은 유죄증거인 증거 6을 성인피해자조건의 참가자들보다 더 강력한 유죄증거로 판단하였다. 증거 6은 흥기에 대한 증거로 참가자들이 미성년피해자에게 흥기를 든 피고인의 행동을 더 비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이 피해자의 고백을 거절하고도 성관계를 한 피고인의 행동이 부적절한지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미성년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피고인을 더욱 비난하여 유죄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증거평가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경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이 본 연구의 시나리오의 그것보다 더 큰 사건(예를 들어, 피고인이 더 치밀하거나 더 파렴치한 위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에서는 유무죄판단에 대한 피해자나이의 영향력이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에 매개되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선행연구에서 성폭행피해자가 어릴수록 피해자의 행동에 성적의 의도가 없었을 것(Burt & Estep, 1981)이라고 여겨져서 피해자가 어릴수록 피해자비난이 감소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어린 아동이 아닌 10대 청소년은 성관계에 합의할 능력이 있고, 성적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으며(Back & Lips, 1998) 또한 폭행에 방어할 신체적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에(Maynard & Wiederman, 1997; Waterman & Foss-Goodman, 1984) 본 연구에서 피해자나이에 따른 피해자비난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조방정식모형에서 피해자비난이 강할수록 유죄판단율이 감소하는

경로는 유의미했다. 때문에 피해자비난이 피해자나이에 영향을 받을 만큼 피해자가 어리다면, 피해자비난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여성 참가자들은 남성 참가자들보다 유죄판단을 많이 했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판단자성별이 사실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은 피해자비난이 아닌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에 완전히 매개되었다. 또한 피해자비난에서 판단자성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에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에서 효과가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피고인의 행동을 더 비난할만한 행동으로 평가하여 유죄판단율이 높았다.

여성과 남성 사이의 증거평가의 차이도 나타났다는데, 여성은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대량의 음란물이 발견된 증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를 증명하는 증거를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였다. 여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라고 판단한 증거들이 많으므로 여성이 남성보다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대량의 음란물이 발견되었다는 증거는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거나 양형에 필요한 증거도 아니지만 피고인의 행동을 비난할 수 있는 증거이다. 여성이 이런 증거들을 통해 피고인의 행동을 더 부적절한 것으로 비난하고 유죄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남성이 여성보다 피해자를 더 많이 비난한 선행연구(Maurer & Robinson, 2008)와 달리 본 연구에서 판단자성별에 따른 피해자비난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피해자비난에서 판단자성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몇몇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다(Cassidy & Hurrell, 1995; Davies & Rogers, 2009; Strömwall

et al., 2013a; Strömwall et al., 2013b). 이 중 가장 최근에 출판된 연구들(Strömwall et al., 2013a; Strömwall et al., 2013b)에서는 피해자비난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대체로 사람들이 피해자를 지지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처럼 참가자들이 피해자보다는 피고인을 비난하기 때문에 피해자비난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양형정보인 피해자나이와 재판을 판단하는 사람의 성별이 사실판단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심리적 경로를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 검증한 피해자나이는 사실판단과정과 양형판단에서 분리해서 제시할 수 없는 양형정보다. 그러므로 피해자나이의 영향력과 그 심리적 경로를 검증한 본 연구는 사실판단에서 피해자나이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판단자성별이 사실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특정 재판에서 판단자를 여성, 혹은 남성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 판단자성별이 사실판단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심리적 경로를 파악한 본 연구는 향후 강간사건에서 판단자성별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으로 사용된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행동에 대한 부적절함을 측정한 것이었다.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만 13세 미만이 아니라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한 성관계는 위법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은 판단자성별이 사실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완전히 매개하였다. 증거물 중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대량의 음란물을 여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판단했다. 이 증거는 피고인이 불건전한 사람이라는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은 증거다. 재판에서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발견한 음란물 같은 증명력이 없으면서 피고인을 비난할 가능성이 높은 증거들은 배심원들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

사실판단이 피해자나이 등의 양형정보와 판단자성별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법정에서 판단자는 편파 된 판단을 스스로 경계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직업법관과 달리 배심원들은 한 번의 사건을 판단하기 위해 모집되기 때문에 배심원들을 위한 효과적인 단기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피해자나이와 판단자성별이 사실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경로를 파악한 본 연구가 그러한 단기교육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공판절차는 일원화되어 있어 전과정보 등 다른 양형정보가 사실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사실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양형정보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그 영향력을 감소시킬 대책을 탐색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포함한 양형정보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은 사실판단절차와 양형판단절차를 나누는 공판절차이원화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참가자가 대학생들로 한정되었다는 표본의 한계를 문제점으로 가지고 있다. 특히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대학생들보다는 기성세대가 민감할 것이므로 표본의 연령층을 확대한다면 피해자나이가 사실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연구에서 사용한 시나리오의 유효증거는

1개로 시나리오의 강도가 다소 약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계층의 참가자들을 모집할 필요가 있고 유죄증거를 늘려 실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의 사회적 기여를 위하여 다른 양형정보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고 그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방법의 효과를 검증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배병렬 (2014). AMOS 21 구조방정식 모델링-원리와 실제, 도서출판 청람.
- 이진국 (2013). 공판절차의 이분화에 관한 소고. *외법논집*, 37, 273-292.
- 임동규 (2004). 21세기 형사사법개혁의 방향과 대국민법률서비스 개선방안 (V)-공판절차의 활성화와 과학화. *연구총서*, 2004(5), 1-312.
- 한상훈 (2008).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정착방안”. 『저스티스』 제106호, 한국법학원, 483-534.
- Allen, L. A., & Nightingale, N. N. (1997). Gender differences in perception and verdict in relation to uncorroborated testimony by a child victim. *Journal of Offender Rehabilitation*, 24(3-4), 101-116.
- Back, S., & Lips, H. M. (1998). Child sexual abuse: Victim age, victim gender, and observer gender as factors contributing to attributions of responsibility. *Child Abuse & Neglect*, 22(12), 1239-1252.
- Baumer, E. P., Messner, S. F., & Felson, R. B. (2000). The role of victim characteristics in the disposition of murder cases. *Justice Quarterly*, 17(2), 281-307.
- Bieneck, S., & Krahé, B. (2011). Blaming the victim and exonerating the perpetrator in cases of rape and robbery: Is there a double standard?.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6(9), 1785-1797.
- Bottoms, B. L., Golding, J. M., Stevenson, M. C., Wiley, T. R., & Yozwiak, J. A. (2007). A review of factors affecting jurors' decisions in child sexual abuse cases. In M. Toglia, J. D. Reda, D. F. Ross, & C. L. Lindsay (Eds.), *Handbook of eyewitness psychology: Volume 1: Memory for events*, Lawrence Erlbaum: Mahwah, NJ.
- Bottoms, B. L., & Goodman, G. S. (1994). Perceptions of Children's Credibility in Sexual Assault Cases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4(8), 702-732.
- Bottoms, B. L., Rudnicki, A. G., & Nysse-Carris, K. L. (2004). The influence of socially supportive interviewing on adults' perceptions of children's report accuracy. In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y-Law Society*, Scottsdale, AZ.
- Burt, M. R., & Estep, R. E. (1981). Apprehension and fear: Learning a sense of sexual vulnerability. *Sex Roles*, 7(5), 511-522.
- Calhoun, L. G., Selby, J. W., & Warring, L. J. (1976). Social perception of the victim's causal role in rape: An exploratory examination of four factors. *Human Relations*, 29(6), 517-526.
- Cameron, C. A., & Stritzke, W. G. (2003). Alcohol and Acquaintance Rape in Australia: Testing the Presupposition Model of Attributions About Responsibility and

- Blame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3(5), 983-1008.
- Cassidy, L., & Hurrell, R. M. (1995). The influence of victim's attire on adolescents' judgments of date rape. *Adolescence*, 30(118), 319-324.
- Chappell, D. (1976). Forcible Rape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Surveying Present Practices and Projecting Future Trends. *Crime & Delinquency*, 22(2), 125-136.
- Crowley, M. J., O'Callaghan, M. G., & Ball, P. J. (1994). The juridical impact of psychological expert testimony in a simulated child sexual abuse trial. *Law and Human Behavior*, 18(1), 89-105.
- Davies, M., & Rogers, P. (2009). Perceptions of blame and credibility toward victims of childhood sexual abuse: Differences across victim age, victim-perpetrator relationship, and respondent gender in a depicted case.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18(1), 78-92.
- Deitz, S. R., & Byrnes, L. E. (1981).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for sexual assault: The influence of observer empathy and defendant occupation and attractiveness. *The Journal of Psychology*, 108(1), 17-29.
- Demuth, S., & Steffensmeier, D. (2004). Ethnicity effects on sentence outcomes in large urban courts: comparisons among white, black, and hispanic defendants. *Social Science Quarterly*, 85(4), 994-1011.
- Duggan III, L. M., Aubrey, M., Doherty, E., Isquith, P., Levine, M., & Scheiner, J. (1989). *The credibility of children as witnesses in a simulated child sex abuse trial. In Perspectives on children's testimony* (pp. 71-99). Springer New York.
- Feldman-Summers, S., & Lindner, K. (1976). Perceptions of victims and defendants in criminal assault case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2), 135-150.
- Gabora, N. J., Spanos, N. P., & Joab, A. (1993). The effects of complainant age and expert psychological testimony in a simulated child sexual abuse trial. *Law and Human Behavior*, 17(1), 103-119.
- Golding, J. M., Alexander, M. C., & Stewart, T. L. (1999). The effect of hearsay witness age in a child sexual assault trial. *Psychology, Public Policy, and Law*, 5(2), 420-438.
- Golding, J. M., Sanchez, R. P., & Segó, S. A. (1997). The believability of hearsay testimony in a child sexual assault trial. *Law and Human Behavior*, 21(3), 299-325.
- Golding, J. M., Sanchez, R. P., & Segó, S. A. (1999). Brief research report: Age factors affecting the believability of repressed memories of child sexual assault. *Law and Human Behavior*, 23(2), 257-268.
- Goodman, G. S., Batterman-Faunce, J. M., Schaaf, J. M., & Kenney, R. (2002). Nearly 4 years after an event: Children's eyewitness memory and adults' perceptions of children's accuracy. *Child Abuse & Neglect*, 26(8), 849-884.
- Greene, E., & Dodge, M. (1995). The influence of prior record evidence on juror decision making. *Law and Human Behavior*, 19(1), 67-78.
- Hair, J. F. Jr.,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2006).

- Multivariate Data Analysis*, 5th ed., Preice-Hall International.
- Kalven, H., & Zeisel, H. (1967). *The american jury*. Boston, MA: Little, Brown.
- Krahé, B., Temkin, J., & Bieneck, S. (2007). Schema driven information processing in judgements about rape.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1(5), 601-619.
- Maurer, T. W., & Robinson, D. W. (2008). Effects of attire, alcohol, and gender on perceptions of date rape. *Sex Roles*, 58, 423-434.
- Maynard, C., & Wiederman, M. (1997). Undergraduate students' perceptions of child sexual abuse: Effects of age, sex, and gender-role attitudes. *Child Abuse & Neglect*, 21(9), 833-844.
- McNamara, K., Vattano, F., & Viney, W. (1993). Verdict, sentencing, and certainty as a function of sex of juror and amount of evidence in a simulated rape trial. *Psychological reports*, 72(2), 575-583.
- Nightingale, N. N. (1993). Juror reactions to child victim witnesses: Factors affecting trial outcome. *Law and Human Behavior*, 17(6), 679-694.
- Russell, D. (2003). *The politics of rape: The victim's perspective*. iUniverse.
- Shaver, K. (2012). *The attribution of blame: Causality, responsibility, and blameworthiness*.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 Strömwall, L. A., Alfredsson, H., & Landström, S. (2013a). Blame attributions and rape: Effects of belief in a just world and relationship level. *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 18(2), 254-261.
- Strömwall, L. A., Alfredsson, H., & Landström, S. (2013b). Rape victim and perpetrator blame and the Just World hypothesis: The influence of victim gender and age. *Journal of sexual aggression*, 19(2), 207-217.
- Yozwiak, J. A., Golding, J. M., & Marsil, D. F. (2004). The impact of type of out-of-court disclosure in a child sexual assault trial. *Child maltreatment*, 9(3), 325-334.
- Waterman, C. K., & Foss-Goodman, D. (1984). Child molesting: Variables relating to attribution of fault to victims, offenders, and nonparticipating parents. *Journal of Sex Research*, 20(4), 329-349.
- Whatley, M. A. (1996). Victim characteristics influencing attributions of responsibility to rape victims: A meta-analysi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2), 81-95.
- 1 차원고접수 : 2017. 09. 29.  
심사통과접수 : 2017. 11. 15.  
최종원고접수 : 2017. 11. 22.

## The effect of sentencing factor and juror's gender on verdict

Danee Lee

Kwangbai Park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Fact-finding of criminal trials in Korea is not procedurally separated from sentencing. Evidences and information on sentencing factors are together presented to the fact-finders. This study was to see whether and how the victim's age, a sentencing factor, would influence the decision of guilty. And also the effect of participant's gender was examined. Participants read one of two scenarios in which either a 16 or 26 years old female victim alleged the defendant for rape. They individually rendered the verdict and responded to questionnaire items designed to measure the extent to which the participant blamed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for the sexual inciden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verdict was not influenced by the victim's age; and blameworthiness of the defendant mediated the effect of the participant's gender on the verdict. Further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Key words* : sentencing factor, victim's age, participant's gender, verdict, blameworthiness, victim blame